

수출 1조달러 시대 이끌 '중견 정예군' 키운다

산업부-코트라, 301개사 선정
기업당 연간 최대 2억 수출바우처
수출 역량 강화, 현지 애로 해소 등
내수 중심·수출 주도형 맞춤 지원

정부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중견 정예군'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시장·품목 다변화에 더해 수출 주체인 중소·중견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총 301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국고 30~70% 보조)의 수출바우처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기존 '내수 및 수출 초기기업 지원사업'에 더해 5년간 지방 소기업 1000개사를 지원하는 '수출 희망 1000사업'과 수출규모 1~5000만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전경. /코트라

리 규모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을 위한 '수출스타 500' 사업에 이은 중견기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수출 저변 확대를 넘어 '수출 국가대표'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 (5868개사)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축이다. 최근 5년간 본 사업 참가 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0.5%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참가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6900만 달러, 총 수출액은 23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301개사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 10% 이하의 '내수 중심형'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출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이지만 수출 비중이 10% 미만인 '내수 거인' (전체의 4.3%)에 대해서는 '수출기업화'를 추진한다. 자본력과 생산 역량은 충분하지만 해외 경험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현지 시장조사 ▲유력 바이어 발굴 ▲해외 마케팅 ▲계약 체결 지원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미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강자' (전체의 33%) 기업은 시장 다변화를 집중 지원한다. 주력 시장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코트라의 132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비관세장벽과 폐쇄적 공급망 등 현지 애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은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1:1 수출 컨설팅 ▲해외무역관 특화 마케팅 ▲전시회 참가 ▲해외 시장조사 ▲해외규격 인증 등 7000여 개 서비스 메뉴판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코트라는 3월부터 선정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에 선정된 301개사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며 "내수초보 및 지역 기업 지원에 더해 수출 국가대표 양성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별 맞춤형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농식품부 올해부터 매월 둘째주 '농촌관광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및 농촌관광 종합포털 '웰촌'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기간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8만8000명에서 470만8000명으로 122만 명(35.0%) 늘었다. 같은 기간 웰촌 방문 건수도 6만여 건(62.0%) 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정례화하고 계절별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상시 제공한다.

이달에는 웰촌 홈페이지에 봄 특집 농촌관광 정보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추천 여행지, 이달의 으뜸촌, 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계절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한다. 4월 이후에는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농촌 체험·숙박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구매금액에 따른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농촌 투어패스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 관세정책 복합·다층적 구조 전환... 전략적 점검 필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IEEPA 판결 후미 다양한 수단 병행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 미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일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회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방침을 표명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존 232조 품목 관세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개별 관세 인상 문제를 넘어 구조적 통상 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망 재편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등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

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최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해외 상무관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며 각국 정부 동향과 산업계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이러한 점검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로 선정된 경남 테크노파크 본부. /해수부

해수부 창업투자지원센터 경남도 추가 선정

해양수산부가 경상남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강화를 도모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수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해양수산 분야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5년 부산, 제주를 시작으로 현재 경북, 강원, 전남, 충남, 전북 등 전국 7개 거점에서 운영해 왔다. 이번 경남도의 추가로 올해부터 총 8개소가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창업부터 성장, 그리고 도약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창업·경영 상담(컨설팅)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지원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7개 기업 창업을 포함해 415여 개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1795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경남도 내 경남테크노파크를 신규 센터로 추가 선정해, 지역 내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투자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日 니기타 농업박람회서 232건 수출상담 진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달 하순 열린 '2026 일본 니기타 농업박람회'에 참가해, 5657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및 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이 박람회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현지 바이어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박람회 개최 전 일본 대형 유통기업 및 농산업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을 연결해 수출상담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공사가 운영하는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및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 홍보관(랜딩페이지)을 구축했다.

이 같은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박람회 현장에서는 232건(5657만 달러)의 상담이 진행되며 K-농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입증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수원-싱가포르 정부, SMR 분야로 경제협력 확장

싱가포르 정부기관, 韓 원전기업과 최초의 원자력 협력 체결 의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싱가포르 정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

한수원은 지난 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이하 EMA)과 SMR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싱가포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됐으며, 체결식에는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과 콕 키옹 푸아(Kok Keong PUAH) EMA 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 내 SMR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공동조사 ▲원자력 인력 양성 ▲기술 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등에서 협력



한국수력원자력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지난 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콕 키옹 푸아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 청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수원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싱가포르 정부기관이 한국 원전 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원자력 협력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역·투자 중심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협력의 미래 에너지 분야로 확장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

콕 키옹 푸아 EMA 청장은 "국내 에너지 자원이 매우 제한적인 소규모 국가에게는,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첨단 원자력 기술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수원과의 협력은 SMR에 대한 우리의 역량과 기술적 이해를 한층 강화하고, 원자력의 적합성을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원전 운영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대응해 왔다"라며 "EMA가 SMR 기술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파트너로 적극 협력하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